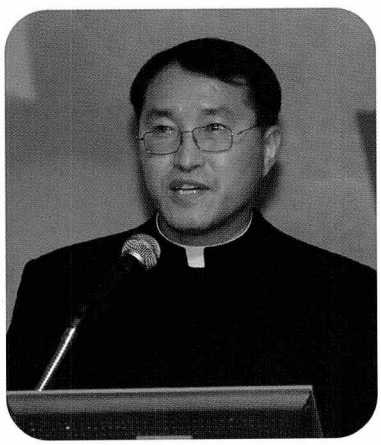
'한국의 AIDS 쉼터에 대한 나눔'

Sharing about the Aids shelter in Korea.



김종일 베네딕토 신부

인류의 최대 질병이라 일컬어지는 에이즈가 지속적인 예방법이나 치료제의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보건문제로 남아있다.

질병관리 본부에 의하면 한국은 1985년 12월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이래 현재 하루에 2.2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여 누적감염인수 4,755명이고 이중 864명이 사망하여 3891명의 감염인이 생존해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에이즈 불감증에 있으며, 나와는 별 상관없는 먼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

에이즈가 우리사회에 침투했을 때, 언론에서는 상식 이하의 보도로 국민들에게 에이즈 감염인을 죄인 취급하여 그들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얼굴 없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게 했다. 또한 감염인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에이즈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인식과 지식으로 감염인들에 대한 오해와 그들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 정부보조금에 의지하여 근근이 연명하는 감염인들을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여 잠적하는 경우마저 생겨나게 되었다.

가족들로 부터도 외면당하는 에이즈감염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큰 지지가 될 사회 집단은 감염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쉼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랜드인인 어느 수녀님이 사창가에서 죽어가는 감염인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7개의 쉼터가 생기게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운영하는 쉼터이다. 이곳에서는 집단생활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목욕을 시키며, 음식을 제공하고, 병의 치료를 하며 그 분들이 스스로 인간다운 느낌을 갖도록 하며 우리와 사회에 중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돕고 있다.

* 김종일 베네딕토 신부(말씀의 선교 수도회)는 에이즈 감염인 '광주쉼터' 대표이며 '한국가톨릭레드리본' 회장으로 재직 중임.